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은행으로 슬기로워질 청년농 생활' 간담회 개최

✎ 이순호 기자 | ⓒ 승인 2026.10.07 17:16

성주지사 회의실서 10월 1일 청년농업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농지지원사업 안내 진행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국제아이저널

[국제저널 = 이순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장규석)는 10월 1일 지사 회의실에서 2026년 신규 선정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으로 슬기로워질 청년농 생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규모, 영농계획, 사업 참여 의향 등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영농 초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농업인들은 '생애첫취득 농지지원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농지은행 포털을 활용한 매물 확인, 임대 관련 농지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장규석 지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이 영농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호 기자 ijj@ijj.co.kr